

‘북한 자금줄 원천 차단하라’

美 상원 북제재법 승인... 핵심은 유입 자금 군수산업 전용 가능성 방지 정부 “북한만 특정한 최초의 제재 법안...초당적 대응 의지 반영”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다. 북한의 핵, 미사일 등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래를 통해서도 유입된 자금조달 군수산업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다.

세컨더리보이콧의 경우 모든 ‘광물’의 거래를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국의 단체나 개인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거래를 할 경우, 실령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지라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와의 금융 거래 등을 지원, 관계를 맺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지라도 제재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그 어떠한 거래도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에는 BDA식 제재도 포함됐다. 미국은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해국법’에 돈세탁 우려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의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미국 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조사를 나서 북한 관련 계좌와 50개를 동결했다. 동결 금액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제3국의 대북 거래가 연쇄 중단되면서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미 상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 전체를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될 경우 5

단계의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은행이 북한 관련 금융정보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부터 미국 은행에 있는 북한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이 법안은 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 재심을 거친 다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이송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이날 말께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미 상원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와 관련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 의회 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인식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민을 특정한 최초의 제재 법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성주 기자

도내 중소기업 지원 78억 투입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차등지원 · 일자리 지원확대 · 모바일 통한 판로지원 등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78억 14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고질적인 3고(자금 인력, 관료) 현상 감소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업들의 지원정책 반영을 위해 4,8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체를 방문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또 기업수요에 맞춘 자금추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차등지원과 지원업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일자리센터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 구직자와의 1:1 심층상담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직활동을

추진한다.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 오프라인 방식의 판촉지원을 시대변화에 맞게 모바일을 통한 판로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JB PLAZA를 통해 도내 농수산물 등 우수상품이 전국에 판매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타깃시장별 품목군별,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지원과 FTA활용 통상, 통관 및 차 컨설팅 지원을 주요 전략으로 삼을 방침이다.

홍용용 원장은 “2016년을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 그 결실을 수확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013년 69억4500만원을 투입해 자금은 2014년 대비 10.9%(2014년 459개사, 2015년 509개사), 수출지원은 6.9%(2014년 1천754만달러, 2015년 1천876만달러), 국내 판로확대는 8.3%(2014년 398억원, 2015년 431억원), 일자리지원은 16.8%(2014년 939명, 2015년 1,099명) 증대시켰다. /신광영 기자

상반기 도내 중기 1656억 신규보증 **신용보증기금 계획 확정**

11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북지역에 1,656억원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신보가 최근 들어 부진한 내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증목표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신보는 신용보원(매출채권보합) 442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승등근 전주신용보증기금 지정장은

“신보 전주지점은 신규보증 476억원을 경제활력제고 부문(신성장동력, 창조기업, 창업기업, 예비투자기업) 등에 중점지원할 예정이다”면서 “목표배정 금액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우체국 알뜰폰 판매 재개

새해부터 가입 폭주로 우체국 알뜰폰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 재개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알뜰폰 코너에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다만 기존 고객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일부 업체는 당분간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

작년 전국 오피스텔 6만가구 공급

13년 만에 최고치... 평균 분양가 3.3㎡당 784만원

지난해 전국에 오피스텔 6만651가구 공급됐다. 이는 13년 만에 최고치다.

분양기도 역대 최고치인 3.3㎡당 784만원을 기록했다. 저금리에 미약한 투자자가 없어 오피스텔 투자수요가 이어지면서 고분양가·공급과잉 현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피스텔은 지난해 분양가 상승에 따라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은행금리보다 높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피스

텔 수익률은 연평균 5%대를 웃돈다. 아파트와 상가의 임대수익률(연평균 3~4%)보다도 높다.

기준금리와 오피스텔 평균수익률 사이의 편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률 하락에도 투자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준금리 1.5%와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5.5% 사이의 편차는 지난 2008년 8월 1.22%p에서 올해 1월 4.05%p 수준으로 크게 벌어졌다. /이성주 기자

JB카드 새출발, 새학기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JB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JB카드 새출발, 새학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점업종에서 10만원 이상 사용시 모바일쿠폰을 제공하며 온라인 업종 3만원 모바일쿠폰 증정 이벤트와 학원업종 사용금액별 캐시백 및 200만원 이상 사용 고객 TOP10에게 상품권카드도 증정한다.

또한 JB카드를 Samsung Pay 최초 등록 후 일정금액 사용하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시행한다.

그 외에도 롯데백화점(전주점) 상품권 증정, 도내 하이마트 최대 5만원 캐시백에 최대 12개월(부분)무이자할부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1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진행되며, 마케팅 관계자는 “학부모 고객만을 위한 이벤트에 국한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에 JB카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면서 “JB카드가 언제나 고객들의 도전과 시작을 응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연구장비공동 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전북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2016년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비파괴검사 및 소재 분석장비(전자현미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X-선 단층촬영기 등)와 광특성측정장비(배광측정시스템, 적분구) 등의 연구장비를 도내 중소기업 28개사에 지원하고 있다.

연구장비 활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장비 이용료의 60~7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농어촌공, 공공재정 부정수급 단속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정수급은 사무장병영, 요양병영, 어린이집 보고금 등 복지분야와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버스보조금 등 교통분야, 국공립사립대 보조금 등 교육분야, 체육단체보조금 등 체육분야, 콘텐츠 산업 육성 등 문화예술분야, 실업급여 등 노동분야, 중소기업 벤처 육성 등 산업분야, 환경 해양수산 등 10대 분야가 대상이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이며 신고상당 점수(110)도 받는다.

신고자는 신분 비밀보장과 함께 최대 30억원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광영 기자

노스페이스, 백팩 3종 출시

노스페이스는 2016년 신학기 시즌을 맞아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백팩 3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백팩 3종은 원단 후면에 4번에 걸친 코팅 처리를 했다. 메시 소재의 S커브(S-CURVE) 벨트를 사용해 땀 흡수와 통기성을 돕는다.

'엠에이킨 백팩'은 가방 뒷면에 지퍼를 적용해 내용물을 보다 편하게 넣고 뺄 수 있다. 색상은 블랙, 네이비 및 차콜 등 3가지다. 가격은 13만원.

'하이트라벨 오리자널 백팩'은 코듀라(Cordura) 원단을 사용해 내구성이 우수하며 생활 방수 기능도 탁월하다. 메시 소재가 방판을 적용했다. 색상은 코랄 로얄 블루, 민트 및 다크 그레이 등 4가지다. 가격 9만9000원.

'탱커 백팩'은 가방 측면부터 내용물이 섞이지 않도록 가방 내부 공간까지 다양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편리함을 더했다. 색상은 레드, 닥 블루, 다크 네이비 및 블랙 등 4가지다. 가격은 12만6000원. /이성주 기자

1588-4477

www.jbbank.co.kr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걸을 지켜드리는데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